

인간의 탐욕이 부른 동물병원체의 역습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데이비드 콰먼 지음·강병철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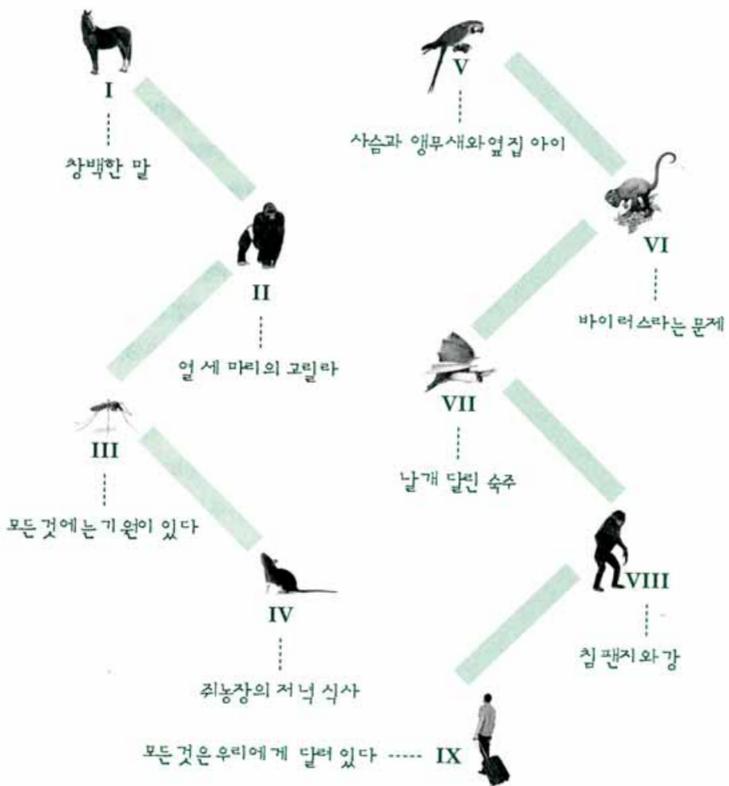
다음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신종전염병 사스, 에코 없이 발생해 닭을 몰살하고 인간까지 위협하는 조류독감, 아프리카를 죽음의 공토로 몰아넣은 에볼라, 1920년대 50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수공통(人獸共通) 전염병이다. 즉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생기는 병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의 질병"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온 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적이 있다. 4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막대한 희생을 치른 뒤 가까스로 진정됐지만, 메르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공포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동물의 병원체는 어떻게 인간에게 옮겨올까? 당연한 얘기이지만 인간과 동물의 접촉을 통해서이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과 동물의 접촉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오늘의 70억을 넘는 인구(개체

조류독감·사스·에이즈·에볼라...
동물 죽이고 자연 파괴한
수십억 인체는 병원체 서식지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을 파괴해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고정 필자이자 저명한 과학 저술가인 데이비드 콰먼이 신간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를 펴냈다. 저자는 5대양 6대륙을 숨가쁘게 돌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의 세계를 날날이 파괴한다. 의사 출신으로 현재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번역과 출판업을 하고 있는 강병철 씨가 번역을 했다.
환경과 과학 분야 논픽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데이비드 콰먼은 믿고 보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도양 모리셔스섬에 살던 새 도도의 멸종 과정을 추적한 '도도의 노래'로 유명하다.
사실 인간이 거주하는 어느 곳에도 감염병은 잠복해 있다. 전염병은 "생태계라는 정교한 생물학적 시스템 속에서 개체와 생물종 사이를 이어주는 자연적 모르타르(회반죽)"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연두나 소아마비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감염을 일으키므로 백신으로 통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동물을 숙주로 삼아 있다가, 때가 되면 인간을 공격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모든 동물 숙주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이들 병원체를 박멸하기는 어렵다. 더더욱 동물의 몸속

에서 끊임없이 변이를 거듭하기 때문에 완벽한 백신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언급한대로 이 같은 결과는 인간의 탐욕이 초래했다.(인간은 '매뚜기나 천막나방 애벌레처럼 겁을 수 없을 정도로 개체수가 불어난 동물'이다) 편리와 이기를 위해서라면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했다. 심지어 식육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몸속에 있던 병원체는 곳곳으로 확산된다. 밀려나고 쫓겨난 미생물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 이동을 하는데, 수십억에 달하는 인간의 신체는 '좋은' 서식지인 것이다.
향후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갈 사건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전 세계적 유행병이 꼽힌다. 인수공통감염병은 그 가운데 하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이러스다. 유명한 바이러스학자 스티븐 모리스가 말대로 바이러스들은 운동기관이 없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기 때문이다.
저자는 "다윈주의의 오래된 진실, 즉 인류의 기원과 혈통과 질병과 건강은 다른 동물종과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답은 간단하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김필자주·2만2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문학박사·전남대 강사,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



장재선 '시로 만난 별들'

한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39명의 이야기를 40편의 시와 에세이로 담은 책이 출간됐다.
일간지 기자이자 시인인 장재선 씨가 펴낸 '시로 만난 별들'은 대중문화 스타로 존재해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순수문화의 대표 장르인 시로 풀어낸다.
책을 펼치면 대중문화 스타들이 히로애락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웃들과 얼마나 가깝게 살고 싶어 하는지, 유명세를 누리는 대가로 각종 소문에 시달리며 얼마나 고통 받는지를 읽을 수 있다.
그들도 생활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해 지옥을 견디고, 어느 달 다가 온 행운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황정순, 최은희, 패티미, 김지미, 최불암과 이장호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2부는 1950년대생 인물부터 1960년대생 스타들까지 포함한다. 조용필을 필두로 안성기, 최성수, 송강호, 엄정화 등과 함께 김윤진, 하지원, 수에 등이 등장한다. 3부는 1970년대 이후 출생한 배우 전지현, 손예진, 김옥빈 등과 더불어 아이돌 가수 윤두준과 소녀시대 등의 스토리가 펼쳐진다.
저자는 "제 공력에 대한 부끄러움 탓에 십 수 년 동안 문학적 글쓰기 작업을 책으로 묶어내지 않았으나, 이번 책은 독자들이 공감해주리라 믿기에 기꺼이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작가·1만4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호기 '세상을 뒤엎든 사상-현대의 고전을 읽는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가끔 걸어진 길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처럼 인간과 사회의 의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라면, 사회적 맥락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유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유의 형성은 시대를 만든 사상의 이정표인 고전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그 가운데서도 2차대전 이후 현대 고전들은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와 제도에 놓인 인간 존재의 의미 탐구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펴낸 '세상을 뒤엎든 사상-현대의 고전을 읽는다'는 1947년 출간된 막스 호프코히머와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부터 2016년 출간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까지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고전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러한 사상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역사 변동을 고찰했다. 전후의 팍스 아메리카나와 황금시대에 시작해 1980년대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포스트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까지를 개괄한 것이다.
소개된 저작들은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에서, 때로 분야의 경계를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을 담고 있다. 실제 조지 오웰의 '1984'를 비롯한 문학에서부터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비롯한 자연과학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매디치·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변광호 'E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

건강심리학계에서는 성격을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A, B, C, D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유발되는 병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완벽주의자 A형은 심장병 확률이 높고, B형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낙천적인 유형으로 사회 적응이 원활하지 않다. C형은 내성적이고 방어적이며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 암 발생률이 높다. 적대적인 D형은 적개심이 많고 시니컬하며 관상동맥질환, 심장병, 우울증 등으로 조기 사망률이 높다.
현재 전북 정읍의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 변광호는 'E형인간 성격의 재발견'에서 호르몬의 원리와 이해, 생활습관에 따른 성격 유형 검사법, 긍정성과 부정성 측정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E형 성격'을 찾기 위한 '333정수법'을 소개한다.
저자가 개발한 '333정수법'은 기존의 명상 효과는 충분히 살리면서, 일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수시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심플한 마음훈련법이다. 보통 하루 10분씩 3번, 4주간의 훈련으로 성격 변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2017년 9월, 저자가 새롭게 규명한 'E형'이 추가되었다. 'E형 성격'은 살아 가면서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면이 강하다. 그는 책을 통해 'E형 성격'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감정에 관여하는 뇌 속의 호르몬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자신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불광출판사·1만50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